

# 사랑스런 동생들 부처님 품으로

### 예천불교청년회, 지역 어린이 '추억만들기' 행사



예천지역 어린이들이 예천불교청년회원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 천주교와 정기 체육대회도

1월 8일 대구 우방랜드 눈썰매장에서 남달리 신나게 눈썰매를 타는 초등학생 30여명과 10여명의 청년들. 형제들은 분명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지도 않다. 분명한 것은 서로 나이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신나게 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신나는 눈썰매 타기는 예천불교청년회(회장 최순식)가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이벤트였다. 예천불교청년회는 농촌에서 자라는 지역 어린이들과 방향 때마다 '추억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활동 중단의 아쉬움을 딛고 작년 5월 재창립된 예천불교청년회는 그간 50여명의 회원이 법회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매월 세 번 이상 법회를 갖고 3차례의 철야옹양진전법회와 3번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연중계획보다 더 간절한 꿈이 있다. 어린이 법회를 설립해 '사랑스런 동생'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개최한 여름불교학교에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해 어린이 법회의 상설화는 올 여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억 만들기'도 동생들을 사랑하는 청년회원들의 따뜻한 가슴에서 피어오른 특별한 이벤트다.

예천불교청년회는 올 6월 창립되는 예천천주교청년회와도 손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의 종교화합과 어린이 사랑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두 단체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와 예천천주교사목회의 정기 체육대회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예천불교청년회는 오랜 활동중지의 아픔을 딛고 재창립 하면서 지역 종교계의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천=배지선 기자

#### 외국인근로자 한국 설 체험



설을 맞아 구미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떡국을 나눠먹으며,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설터로 각광받고 있는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대표 진오이 금오환경사랑회 봉사자들과 함께 1월 15일 개최한 한국문화체험행사는 떡국잔치였다(사진). 구미지역 외국인근로자 7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이길노 명예원장의 무료진료와 이마음 봉사, 노동 상담까지 이어져 더 따뜻한 시간이 됐다.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은 앞으로도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셋째 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이마음봉사와 노동 상담, 박대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 서문시장 피해자 돕기 바자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돕기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를 주관한 인드라마정토회 김삼길 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도반님들과 불건을 구입하신 모든 도반님들에게 감사하다"며,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서문시장 피해 상인 돕기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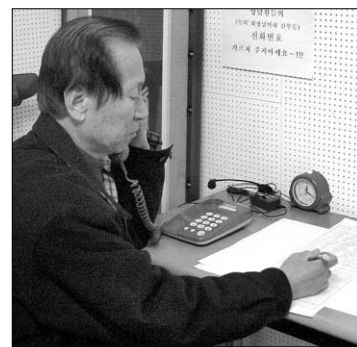
전국 최대의 비구니 강원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이)이 1월 14일 제42회 졸업식을 봉행, 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사진). 함께 봉행한 제8회 승가대학원 졸업식에서는 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정화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이원동 청도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졸업식은 학감 일진 스님의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 교육원장 스님의 처사, 상장수여, 기념품 증정, 훈장, 회환증정, 축사, 축가, 송사, 답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 삶의 가치·즐거움 함께 배우죠

### 대구불교방송 부설 자비의 전화



어려움에 처한 중생의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고자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 집니다"라는 motto아래 10년을 넘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다. 바로 대구불교방송 부설 자비의 전화(1588-5408, 053653-0408, 회장 고경순) 상담 봉사자들이다.

보통 하루 평균 5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가정문제, 부부문제, 이성문제 등 상담내용도 다양하다. 자살 이혼을 앞두고 급박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상담은 보통 2시간, 3시간을 넘기기 마련이다.

고경순 회장은 "자기가 번 돈으로 밥을 먹어도 세상의 턱을 보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마련된 공간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덕에 대한 보답의 길을 찾는 것도 좋은 것"이라며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할 것을 권했다.

김정자 상담원도 "활동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 내가족의 소중함을 새로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있었던 삶의 행복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구 자비의전화는 상담 외에도 봉사부가 별도로 있어 자선복지관에서

#### 말 못할 사연 '내 일' 처럼 듣고 해결책 제시

#### 명확한 데이터로 판단 도와, 상담 자체가 포교

1993년 창립한 자비의 전화는 3개월 과정의 카운슬러 대학을 통해 매년 50여 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출해왔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은 20여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오후 반으로 나누어 자리를 지킨다. (사진)

"감사합니다. 자비의 전화입니다. 상담 때문에 전화하셨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구불교회관 2층에 자리 잡은 자비의 전화 사무실. 전화가 걸려오자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내담자(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히 이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도한다.

전화를 걸어온 내담자는 짧은 선택이다. 동서, 친지, 가족 간에 잘 지내고 싶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오히려 인정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내용이다.

"가족 친지를 위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가진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언젠가는 이들도 감화를 받고 이해할 겁니다."

무료급식도 하고, 결식아동돕기, 교도소 재소자 교화, 군 포교 등에도 적극 힘을 쏟고 있다. 삶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자비의전화 봉사자들. 누구보다 행복에 찬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사는 봉사자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환하다.

배지선 기자

## '승가오칙' 실참 통한 수행자상 정립

### 월정사 '한암대중사 수행학림' 3월13일부터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가 청정 자성을 깨닫는 수행 지침인 승가오칙(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 실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인 '한암대중사 수행학림'을 봉행한다.

문수성지이자 화엄사상의 중심지인 오대산에서 화엄경의 대강백 스님들을 초빙해 화엄경 강설을 재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은 3월 13일(한암대중사 열반일)부터 4월 24일(탄신일)까지 매주 금, 토, 일 2박 3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수행학림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고 승가오칙 수행법을 널리 편 한암대중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봉행된다.

53명의 엄선된 재가불자들이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은 한암대중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염불정진, 오대암배(108배 및 참선), 화엄산림, 철야정진,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행학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한

암대중사 탄신제·한암대중사 수행일화집 출판법회·한암대중사 선사상 국제화술세미나 등이 열린다. 남종우 기자

#### 재가자 포살법회 정기화

#### 1월21일부터 중대사자암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에서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살법회가 정기적으로 열

남종우 기자

#### 포항 죽림사·성주 심원사 전통사찰 지정

포항 죽림사와 성주 심원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1월 19일 도보를 통해 포항죽림사와 성주 심원사를 전통사찰로 존엄에 의해 지난 12일 전통사찰로 등록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전통사찰은 모두 173곳으로 늘어났다.

신라시대 창건된 죽림사(주지 중민)는

북국사 포교당으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809년 중창불사 당시 발견된 상량문에 신라시대 창건사찰임이 명기되어 있다. 성주 심원사(주지 본혜)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창건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소실로 사지된 남아있는 상태다. 성주군은 발굴조사과정을 거쳐 원형 복원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내용	강의 내용	강의 과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립니다.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이론,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 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속,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착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제, 예수제,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작), 지화(전통꽃), 재설비, 장엄시예(법사),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약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해드립니다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을 지도해 드립니다		스님 및 일반불자

-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 3) 모집일자 : 2006년 2월 25일까지.
-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 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반비)
-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 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 보우승가대학 학장